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경과보고서, 2021. 12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경과보고서

2021년 12월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경과보고서

2021년 12월



TRANSITIONAL
J U S T I C E
WORKING GROUP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옹호그룹입니다. 아직 억압적 체제로부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환이 이루어진 사회 모두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또한 인권참사와 유린에 대응하여 책임추궁에 앞장서는 기관과 개인들과 협력하고 실천적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자와 연구진

박아영
Dan Bielefeld
이영환
Scott Stevens
최유림
신희석
강정현
박송아
채수경
윤다예
Sippachai Kunnuwong

표지 그림

탈북화가 강춘혁

권장하는 인용방법

한국어(번역본)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서울, 2021).

영어(원문) | “Mapping Killings under Kim Jong-un: North Korea’s Response to International Pressure,” Seoul: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2021.

발행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 www.tjwg.org (한국어) / en.tjwg.org (English)
이메일 info@tjwg.org
전화 02-722-1162
팩스 02-722-1163
ISBN 979-11-976954-0-7

감사인사

이 프로젝트는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분들의 조언과 지지, 기술지원에 힘입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외부 감수

Sarah A. Son | 셰필드대학교

Lina Yoon | 휴먼라이츠워치 (HRW)

오공단 | 북한 문제 전문가

Ralph Hassig | 북한 문제 전문가

Roger Lu Phillips | 시리아정의책임센터 (SJAC)

Reem El Gantri | 국제전환기정의센터 (ICTJ)

보고서 디자인

조의환, 오숙이

최근 2년간 이 프로젝트와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조언해주신 분들

Patrick Ball | 인권데이터분석그룹 (HRDAG)

Jonathan Drake |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Arthur Green | 오카나간대학

Ian Wagner | 스타디아맵스 (Stadia Maps)

김은덕

이상용 | 데일리 NK

문동희 | 데일리 NK

양혜린 | 연세대학교

오세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핑 프로젝트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QGIS와 OSGEO

PostGIS와 PostgreSQL

OpenStreetMap

Global Administrative Areas (GADM)

차례

요약 8

주요결과 10

조사기록과 분석 방법 12

조사참여자 구성 14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지도 데이터 17

김정은 시기의 처형 18

처형장소 18

공개처형 18

사형한 죄목 21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고 현장에서 처형하지 않은 사례 22

수감 상황에서의 사망 23

시체 처리 24

김정은 전과 이후의 해산시 비교 27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에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위치 개관 27

해산시 내 처형장소들의 변화 31

공개처형장에서의 비인도적 행위 32

공개처형에 동원한 군중 감시 33

공개재판만 하고 처형은 하지 않은 장소들 35

결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37

지도와 차트

지도

1. 조사참여자들의 탈북 전 북한 주요거주지 분포 16
2. 북한 내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 19
3. 김정은 시기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 19
4. 혜산시-주요 기관과 관련 시설들의 위치 26
5. 혜산시-처형장소 진술 묶음 비교 30
6. 혜산시-공개재판에 쓰인 장소들 34

차트

1. 조사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15
2. 조사참여자들의 최종 탈북년도 15
3. 처형장소 데이터 정제 과정 29

요약

2021년 12월로서 김정은의 북한 통치 10년이 되었고,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기념비적 보고서로 인권침해 책임추궁 행동을 촉구한 지 거의 8년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전환기 정의 구상의 하나인 책임추구를 강화하고자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인권침해를 매핑 프로젝트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북한 밖에서 조사기록이 강화되고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북한 지도부가 인권문제를 무시하기 어렵고 북한 내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권력을 다져온 10년은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 감시와 기록을 강화해온 기간이기도 하므로 이 보고서는 우리가 북한의 어떤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6년간 북한 내 처형장소와 암매장 등 시체 처리장소, 인권침해 관련문서나 증거가 있을만한 장소들을 파악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제시한다.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위치들을 파악하고, 정보수집과 분석 등 전 과정에 공간지리정보(GIS)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침해 관련 위치들을 공간지리적으로 매핑하면 서술 증언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 정보나 패턴을 포착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의 세 번째 매핑보고서이다. 김정은 통치 기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2019년 간행한 두 번째 보고서의 업데이트이지만, 새로운 측면은 북한 북동부의 양강도 해안시를 선정하여 새 데이터와 심층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의 진술은 김정은 아래 처형이 계속됨을 시사한다. 혜산시 데이터를 공간지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은 시기의 혜산시에서는 국경에서 멀고 주요한 거주지역들에서도 떨어져 있으며 군중을 동원하더라도 통제하기 쉬운 곳들이 공개처형 장소로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탈북민들의 진술은 처형을 보게 하는 경우에도 북한 밖으로 증거가 유출되지 않게 차단하려고 참석한 사람들을 관계당국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최고지도자의 관대함으로 용서한다면서 김정은을 선전한 여러 사례의 진술들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는 비밀처형이나 실내처형에 관해 기록하는 작업과 처형 결정과 집행 등에서 북한의 국가기구와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명령 지휘체계 연구를 포함하려고 한다. 두 방향은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탈북민들의 진술을 더 확보하고 북한 내 여러 장소를 파악하는 작업에 보탬이 될 것이다.

주요결과

이 매핑 프로젝트는 탈북민 683명을 인터뷰하여

- 처형에 관한 442건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 암매장과 소각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한 30개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김정은 통치 아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자

- 처형장소에 관해서는 27건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이 중 공개처형에 관한 진술은 23건이다. 23건의 공개처형 진술에서 21건은 총살, 2건은 교수형에 관한 진술이었다.
- 공개처형은 주로 개활지와 들판, 비행장 일대, 강둑, 언덕·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개처형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혐의를 언급된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남한 영상 시청·배포 혐의(7건), 마약 관련 혐의(5건), 성매매 혐의(5건), 인신매매 혐의(4건), 살인·살인미수 혐의(3건), 음란행위 혐의(3건)였다.
- 처형 집행 직전에 피고인을 비인도적으로 취급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방법은 김정은 통치 아래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피고인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자비로운 지도자로 선전하려고 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김정은 통치 아래 헤산시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 처형에 관해서는 10건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 공개처형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헤산시 중심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헤산비행장 주변 언덕이나 개활지에서 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개재판에 관해서는 26건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공개재판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장에서 즉각 처형되지 않은 경우는 4건이었다.
- 공개재판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하여 참관하도록 했다는 진술들을 확보하였다.
- 공개처형은 줄어든 것 같다는 진술들이 있었고, 비밀처형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록과 분석 방법

이 조사는 남한 내 탈북민들 가운데 앞선 조사참여자들이 다음 참여자들을 추천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번 보고서를 위해 매핑 프로젝트팀은 김정은 시기²에 북한에 거주하였고 최근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최대한 많이 인터뷰하는 것을 우선하였다.³

김정은 시기 전과 이후는 혜산시의 상황으로 비교하였다. 혜산시를 선정한 이유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많은 정보가 누적된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장소에 관한 현황들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공한 진술 건수를 반영한 것이고, 현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de-duplication)까지 거친 것은 아니다. 동일사건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중복을 제거하려면 각 위치좌표마다 장소정보와 사건 정보 데이터 모두를 놓고 일일이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인터뷰는 도시 이름, 기차역 이름 같은 기초정보만 표시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참

1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보고서에 담은 내용들이 북한 주민 전체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북한의 세번째 통치자인 김정은은 2011년 12월 권력을 세습하였다.

3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보고서를 2019년에 간행한 후부터 실시한 인터뷰 참가자의 96%는 김정은 통치 아래에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다.

여자가 살펴보면서 시작한다.⁴ 조사참여자가 거주하였거나 가장 친숙한 지역의 지도에서 어느 곳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나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연구원은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부류의 장소와 사건들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문한다. 참여자가 어떤 사건을 언급하면 진행자는 그 사건에 관련된 장소들을 위성사진에서 지목할 수 있는지 묻고, 참여자가 직접 위치를 찾는다.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장소를 주로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다. 세 가지 부류는 처형장소와 암매장 등 시체 처리장소, 인권침해 관련문서나 증거가 있을만한 장소들이다.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급한 장소에 관한 묘사를 위성좌표 없이 기록하여 장래의 분석과 다른 인터뷰를 위해 보존한다.

참여자에게는 인터뷰 장소를 다녀가는 데에 드는 교통비와 1회 식사비로 책정한 소액의 실경비를 지급한다. 사무국을 방문하고 인터뷰 후 귀가하기까지 보통 4-5시간이 소요된다. 배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 수락 절차는 인터뷰 전에 이루어진다.

이 보고서에 담은 장소와 진술 현황은 조사참여자가 직접 목격했다는 정보와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정보인 경우, 인터뷰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 그리고 인터뷰 진행자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정보들에 기반하였다. 지금까지 처리한 인터뷰 기록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었다. 소문이나 추측에 기초한 진술은 이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거의 완전봉쇄한 이후로⁵ 북한으로 제한적으로 드나들던 정보도 심각하게 차단되었고,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도 급

4 위성사진 상 기초정보는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한 북한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 조사에 쓰는 버전은 제18판(North Korea Uncovered, Version 18, 2009년 6월 25일, <http://www.nkeconwatch.com/north-korea-uncovered-google-earth/>)이다.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 (<https://www.openstreetmap.org/>), 38노스의 DPRK Digital Atlas (<http://38northdigitalatlas.org/>),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NlipMap.do>)도 간헐적으로 참고한다.

5 Choe Sang-Hun, "North Korea Bans Foreign Tourists Over Coronavirus, Tour Operator Says", *New York Times*, January 21, 2020, <https://www.nytimes.com/2020/01/21/world/asia/coronavirus-china-north-korea-tourism-ban.html> (2021년 6월 6일 확인).

감하였다.⁶ 따라서 최근 2년간의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의 계속된 지지와 기여에 힘입어 인권침해 관련 장소를 더 찾을 수 있었고 조사기록 방법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에서 먼 내륙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은 탈북하기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륙지역들의 인권침해 관련 장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지난 6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참여자 구성

조사참여자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다.⁷ 조사 6년 동안 전체참여자는 683명이다.⁸ 이 중에서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이후에도 북한에서 거주한 경우는 200명으로 29%였다. 대부분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 탈북하였고, 이 조사에서는 77%가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탈북한 것으로 나타난다.⁹

이 매핑 프로젝트에 참여한 탈북민 전체 구성과 이 중에서 김정은 시기에 북한에 거주한 참여자 구성 비교는 다음과 같다.

6 코로나19로 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2020년에는 한국 입국 탈북민이 229명에 그쳤는데, 이는 2019년에 입국한 1,047명에 비해 크게 줄었던 것이었다. 2021년 첫 반년 동안 입국한 탈북민은 36명에 불과하였다.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2020, https://www.unikorea.go.kr/eng_unikorea/relations/statistics/defectors/ (2021년 10월 5일 확인).

7 이 보고서에서는 당사자들의 변화하는 선호도를 반영하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 “탈북난민” 등으로도 흔히 불리지만 합의된 단일한 용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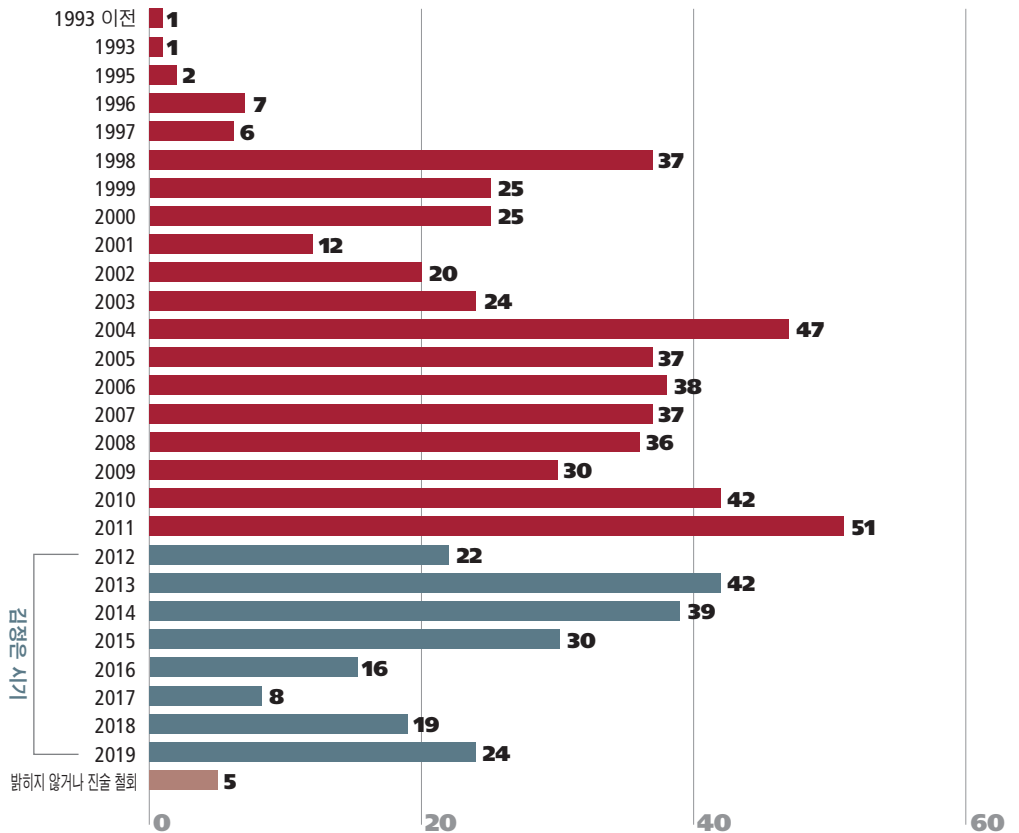
8 2020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3,752명이고, 31.4%가 남성, 68.66%가 여성이다. 이 현황은 한국으로 입국한 누계 수치인데, 다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거나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어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는 이보다 적다. 몇몇 탈북민들은 정착했다가 북한으로 납치되거나 돌아가기도 하였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021년 10월 20일 확인).

9 비교해보면, 통일연구원(KINU)의 2020년도 북한인권백서의 면담조사 참여자 중 82%가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탈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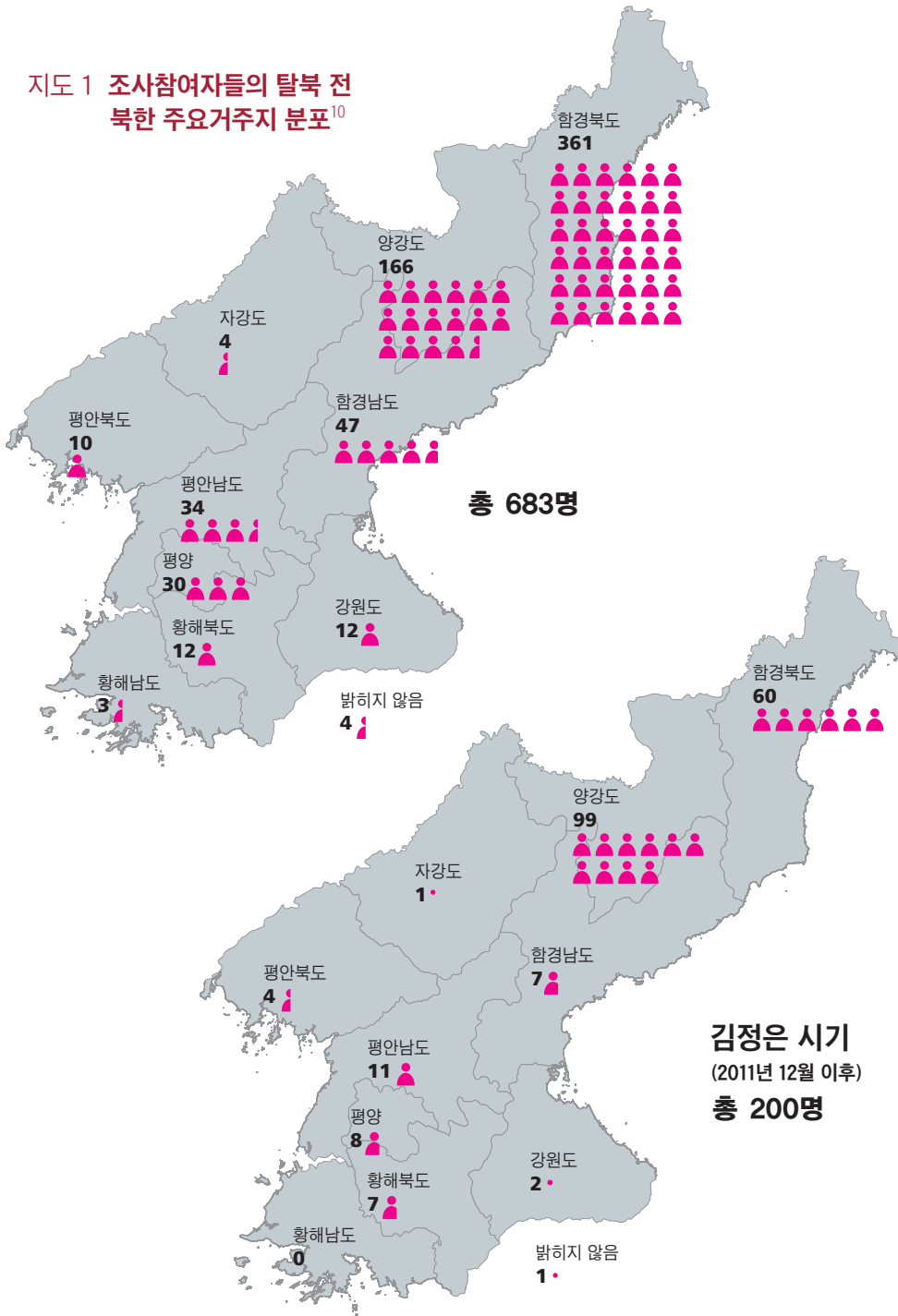
차트 1 조사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총 참여자	김정은 시기 탈북
성별	여성	537	138
	남성	145	62
	진술을 철회함	1	0
나이	10대	10	8
	20대	74	53
	30대	61	18
	40대	140	41
	50대	157	39
	60대	120	26
	70대	107	13
	80대	9	1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철회함	5	1

차트 2 조사참여자들의 최종 탈북년도



지도 1 조사참여자들의 탈북 전
북한 주요거주지 분포¹⁰



¹⁰ 각 도의 경계선은 Global Administrative Areas (<https://gadm.org/>) GADM 2.8 데이터로 생성하였고, 행정구역 별 명칭의 영어 철자는 북한 조선중앙통계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조사 보고서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w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지도 데이터

조사참여자들의 진술, 지목한 위치 정보와 그밖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시각화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에서 개발하고 공개한 도구를 포함하여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였다.

-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프로젝트인 PostgreSQL과 PostGIS 도구를 결합해 지리공간화 기능이 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공간적 분석과 비공간적 분석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실행할 수 있었다.
- QGI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구축한 데이터와 외부 출처의 지리공간 데이터, 연관 데이터를 모두 시각화할 수 있었다.

또한 아래를 포함하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구글어스는 지역마다 최근 위성사진뿐만 아니라 오래 전의 사진도 제공하므로 참여자들의 북한 내 거주 시기를 고려하여 활용하였다.
-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건물, 도로, 수로, 그밖의 장소 등 수십만 가지의 위치 정보를 구축하는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하였다.¹¹

11 오픈스트리트맵 구축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곳, 일하는 곳, 방문하는 곳을 지도로 데이터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오픈스트리트맵의 북한지도 구축에 기여한 사람들에 관한 훌륭한 연구는 <https://wonyoung.so/cartographers-nk>.

김정은 시기의 처형

처형장소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1956년부터 2018년 사이의 처형장소에 관한 총 442건의 진술을 기록하였고(지도2), 이 가운데 김정은 시기인 2011년 12월부터 2018년까지의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로 기록한 것은 총 27건이다(지도3).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김정은 시기의 처형과 그 밖의 사망에 관한 진술들을 유형과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공개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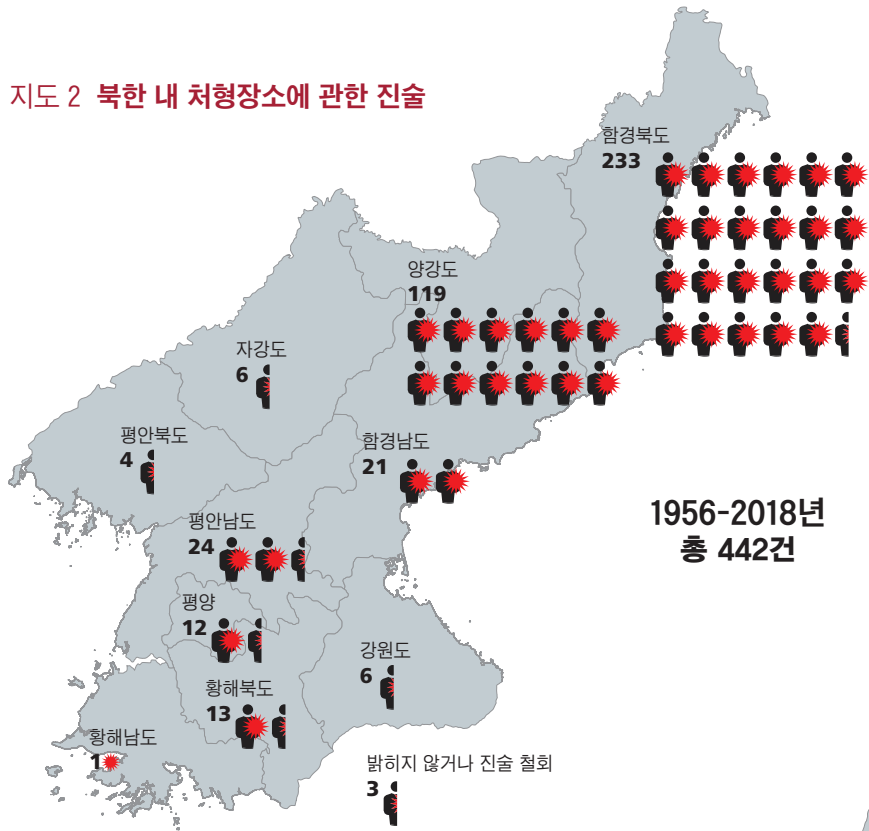
김정은 시기에 집행된 공개처형에 관해 23건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21건의 진술은 총살부대에 의한 공개처형이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3명의 사격수가 총 9발을 사격하는 방식이었다.¹² 다른 2건은 교수형에 관해서였다. 2012년에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2014년에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교수형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비밀처형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김정은 시기에 공개처형이 자주 집행된 장소들은 개활지와 들판, 비행장 일대, 강둑, 언덕·산 순으로 나타났다.¹³ 동원된 군중의 규모는 때마다 다양했지만 수백 명 규모였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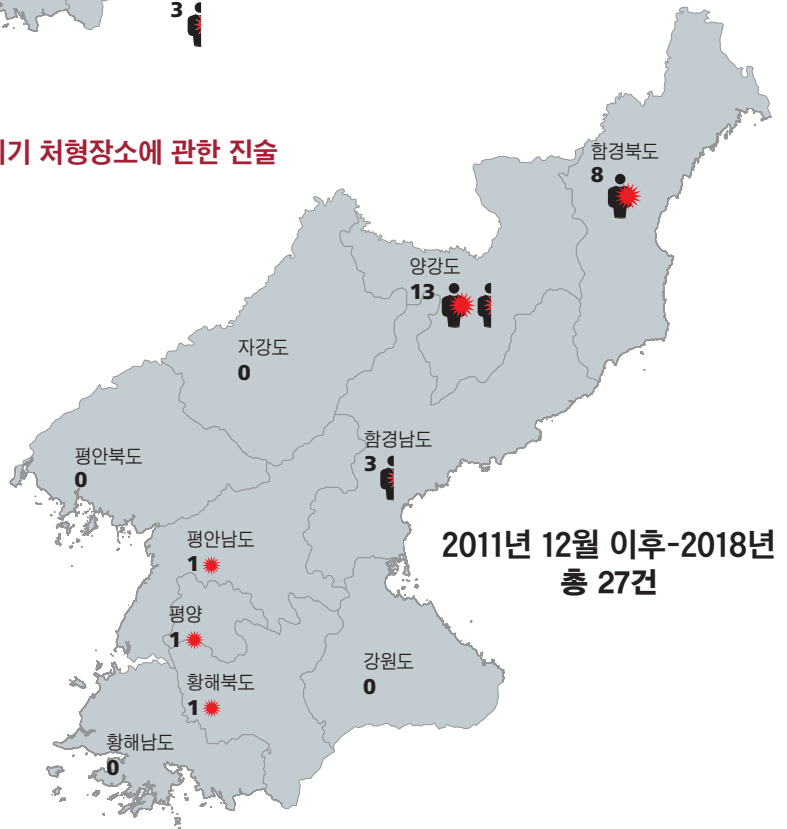
12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북한에서 공개처형 방식은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총살을 가장 많은 경우로 꼽았다. 임순희 외, 『2018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8), 113-116쪽. 북한전략센터(NKSC) 보고서는 AK소총으로 9발 사격하는 것을 일반적인 총살 방식으로 꼽았다. 김동식, “북한 엘리트 처형 및 숙청: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통한 김정은 집단학살사건 조사” (서울: 북한전략센터, 2019), 125쪽.

13 한국어에서 ‘산’은 영어에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여서 산으로 이어지는 언덕이나 비탈 같은 낮은 곳을 지칭할 때도 흔히 쓰인다. 공개처형이 자주 집행된 장소들 중 ‘비행장 일대’의 비행장은 구체적으로 혜산비행장을 뜻한다.

지도 2 북한 내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



지도 3 김정은 시기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



진술이 많았다. 일부 진술인들은 1,000명 넘는 규모의 군중을 목격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 진술인은 과거에는 공개처형이 많은 주민들에게 노출되었지만, 최근년에는 공개처형을 보게 하는 대상이 처형 대상자가 소속된 직장 등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로 제한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하였다.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처형을 강제로 보게했다는 진술도 빈번하였다. 몇몇 사례들에서는 인민반장들이 처형집행 예고 알람을 받아 각자 담당구역 주민들을 참석하게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양강도 혜산시에서 여성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이었던 한 진술인은 2013년에 벌어진 공개처형에 자신이 담당하던 약 20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고 설명하였다.

사형 대상자를 처형 직전에도 비인도적으로 다룬 상황도 기록하였다. 사형 대상자에게 어떠한 존엄성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2012년 함경북도 함흥시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서 잔인한 폭력을 목격했다는 한 진술인은 이를 국가적 경고 메시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하였다.¹⁴

“처형된 사람 뇌에서 뇌수가 막 흐르는데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한 명씩 죽은 사람 얼굴을 보게 했다. 경고의 뜻이었다.”

2014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한 진술인은 나무기둥에 묶인 사형 대상자의 입 속에 자갈돌이 채워져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2015년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한 진술인은 ‘저렇게까지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들 만큼 경악했다고 하였다. 이 진술자는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형 대상자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사회의 악’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하였다.

¹⁴ Sandra Fahy, *Dying for Rights: Putt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on Recor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150쪽.

이 조사의 참여자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개처형에 둔감하게 될 정도로 북한정부는 연극을 하듯이 과도한 폭력을 일삼아왔다. 양강도 혜산시에 살다가 2013년 탈북한 한 진술인은 공개처형을 본 일로 트라우마를 겪은 것 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처형을 목격자 자신과 주위 사람들도 북한 당국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고 처형된 사람들은 당연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하였다. 2013년 혜산시에서 탈북한 다른 한 진술인도 북한주민들에게 공개처형은 흔하고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사형한 죄목

이 조사에서 김정은 시기에 공개처형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혐의를 언급된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남한 영상 시청·배포 혐의(7건)¹⁵, 마약 관련 혐의(5건), 성매매 혐의(5건), 인신매매 혐의(4건), 살인·살인미수 혐의(3건), 음란행위 혐의(3건)였다. 남한 영상 시청·배포 혐의로 처형된 7건 중에서 6건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양강도 혜산시에서, 나머지 1건은 2015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벌어진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공개처형이 집행된 혐의들로는 강간·강간미수·성폭행 혐의(1건), ‘남조선’ 관련죄(1건)¹⁶, 밀수 혐의(1건), ‘비법월경’ 혐의(1건), 납치·유괴 혐의(1건)가 있었다. 공장·기업소 기계 부속품을 절도하거나 물자를 빼내어 판매한 혐의로 공개처형된 경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사건 진술들에서는 흔했지만, 김정은 시기로 한정해보면 이 매핑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사건은 없었다.

북한의 사법체계가 적법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¹⁷ 공개처형 집행 전에 북한당국이 공표한 죄가 혐의자들이 실제로 한 행위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혐의는 탈북을 도운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다른 혐의들도 완전히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 데일리NK는 한 북한주민이 남한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상물을 CD, USB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2021년 4월 말 공개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서영, “한국 영상물 유포한 원산시 주민 ‘반사회주의’ 행위로 공개처형,” 데일리NK, 2021년 5월 20일, <https://www.dailynk.com/20210520-10/> (2021년 8월 6일 확인)

16 이 사례에서 공표된 혐의는 남한행 목적의 탈북을 도운 죄였다고 한다.

17 휴먼라이츠워치(HRW), “집승보다 못한: 북한 미결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 2020년 10월 19일, <https://www.hrw.org/ko/report/2020/10/19/376625>.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처럼 가혹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비단 공개처형뿐만 아니라 북한정부의 정책과 절차,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데일리NK가 입수해 공개하였듯이¹⁸ 북한정부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내용을 북한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문서는 남한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유포하면 이 새로운 법으로 사형을 부과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행위와 처벌 사이에 필요한 균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초법적·약식·임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등은 법 전문을 공개할 것을 북한정부에 요구하였다.¹⁹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고 현장에서 처형하지 않은 사례

김정은 시기의 공개재판에 관해 26건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4건은 공개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공개재판한 현장에서는 처형되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곳에서 비밀리에 사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진술인은 공개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 피고인이 곧장 처형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기관원들이 피고인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하였다. 이 진술인은 그로부터 1년 뒤에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를 찾아갔지만 더 이상 남편을 찾지 말라는 말만 보위부에서 하더라고 들었다고 설명하였다. 공개재판 이후에 관한 정보가 제약되어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언제, 어디에서 집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황에 관한 진술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자비로운 지도자로 선전하려고 했음을 시사한다.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한 번에 16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목격했다는 한 진술인은 그 중 6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고지도자(김정은)의 용서’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들로 공개재판에 세워

¹⁸ 장슬기, “단독: ‘남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데일리NK, 2021년 1월 15일, <https://www.dailynk.com/단독-남영상물-대량-유입-유포-시-사형-대남-적개/> (2021년 6월 9일 확인).

¹⁹ “Mandate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Geneva: Human Rights Council, 23 August 2021),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d=26593>.

진 여성들에게 이와 비슷하게 김정은의 관대함으로 용서한다는 선고가 내려졌다는 진술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경우들에서도 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관료들이 피고들이 무죄 여서가 아니라 김정은의 관대함 덕분에 용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2013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공개재판에서 사면받은 15명의 여성들을 보위부가 큰 버스에 태워 각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렇게 사면을 공언하는 공개재판들에는 동원한 군중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유사성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이미지를 자비롭고 관대한 지도자로 구축하여 그런 말이 북한 전역과 북한 밖으로도 퍼져나가게 하려고 시도한 것일 수 있다. 공개재판을 통해 긍정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 데에 외부적 압력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이 즈음은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제적 관심과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고, 조사위원회가 2014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 때였다.²⁰

수감 상황에서의 사망

김정은 시기 수감 상황에서의 사망에 관해 4건의 사례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2건은 수감시설에서 탈출 도중에 또는 탈출 후 사망한 경우로서 모두 즉결처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함경북도 청진시 제25호 관리소 주변에 살았다는 한 진술인은 2명의 수감자가 관리소에서 탈출했다가 그녀가 살던 마을에서 붙잡혀 즉결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인은 수감자가 탈출하면 체포하는 현장에서 즉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012년 제25호 관리소에서 탈출했다가 얼마 안 되어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²¹ 이미 사망한채로 발견됐는데도 20명 가량의 경비병들이 시체에 총을 갈기더라고 하였다. 이 진술인은 2016년에도 같은 관리소에서 탈출하려던 사람이 체포되어 즉결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시체가 마치 죽은

2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18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 December 2014,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9B-6D27-4E9C-8CD3-CF6E4FF96FF9%7D/a_res_69_188.pdf.

21 이 진술인은 탈출했던 사람이 자살한 것은 사격당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람이 경비병들의 사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사인은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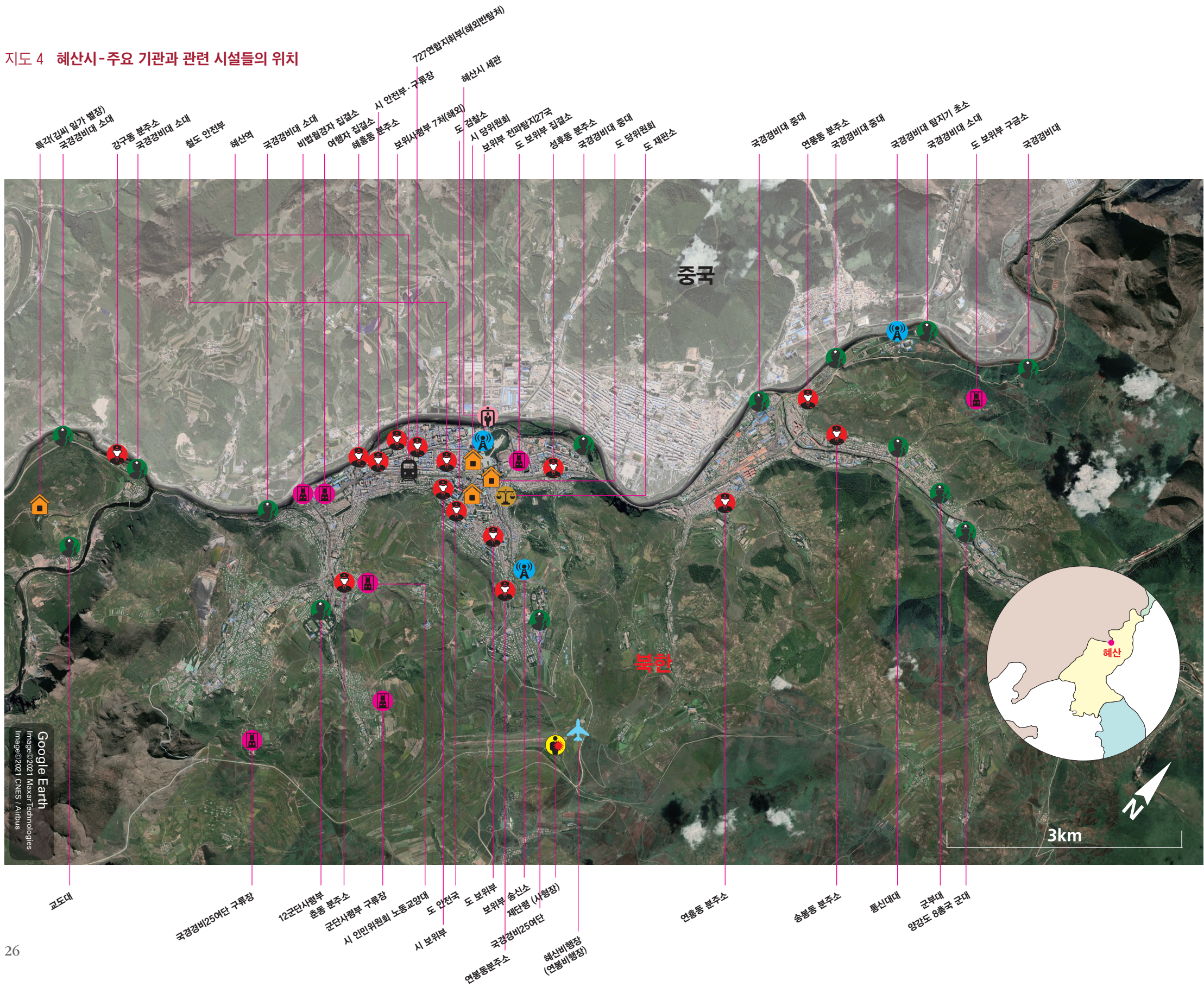
개처럼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다른 2건은 수감 중 사망 사례로 기록하였는데, 가장 최근은 2018년초 양강도 혜산시의 사례였다. 한 진술인은 자신의 남편이 보위부 구류장에 갇혀 있다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한 진술인은 2015년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한 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설명하였다.

시체 처리

이 매핑 프로젝트는 공개처형 등으로 살해된 경우나 수감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비밀 처형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유해가 처리된 장소에 관한 정보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누적해온 데이터만 놓고 볼 때, 김정일 시기에 시체를 처리한 장소로 기록할만한 진술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한 진술인은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공개처형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염방사기로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처형된 사람의 가족들을 참석하게 했고 맨 앞 줄에 앉혀 그런 상황을 지켜보게 했으며, 그 중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기절했다고 진술하였다.

지도 4 해산시-주요 기관과 관련 시설들의 위치



김정은 전과 이후의 혜산시 비교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에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위치 개관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을 따라 양강도 북부에 위치한 혜산시는 많은 북한주민들과 중국 사람들 사이의 거래 관문이 되는 물류·유통 거점 중 하나이고, 외부세계 정보와 북한 내부 상황 정보가 드나드는 경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외부세계로 노출된 편인 혜산시는 북한 당국이 집행해온 사형방식과 처형장소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도 용이한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환기 정의위킹그룹은 공개처형 등에서 김정은 전과 이후로 어떤 주목할만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짚어보고자 혜산시를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혜산시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의 진술이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심층분석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이 매핑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인권침해 관련 기록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을만한 위치들을 파악해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가 쌓이면서 혜산시에서 공개처형과 재판 등에 관계된 기관들의 위치와 주목할 만한 장소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혜산시에는 북한의 25개 시와 144개 군 가운데 13번째로 큰 규모인 약 2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혜산시의 전체 면적은 상당히 넓지만, 주민들은 압록강을

22 지금까지 북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08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혜산시 인구는 192,680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1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수”,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2020년 12월 28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15 (2021년 10월 1일 확인).

따라 형성된 중국과의 국경인 북부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지도4는 우리가 지금까지 혜산시에서 위치를 파악한 당기관, 행정기관, 국가정보기관, 군부대, 사법기관 등 48개 장소들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북한의 경찰, 정보기관, 군이 운영하는 구금시설 대부분도 포함된다.

혜산시 내 주요 기관과 관련 시설들의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혜산시 여러 곳에 국가정보기관들과 경찰, 구금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혜산시 전 지역에 다양한 군부대들이 배치되어 있고 공개처형 집행에 군인들이 동원될 수 있다. 셋째, 혜산시 내에 검찰소와 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재판은 사법기관 바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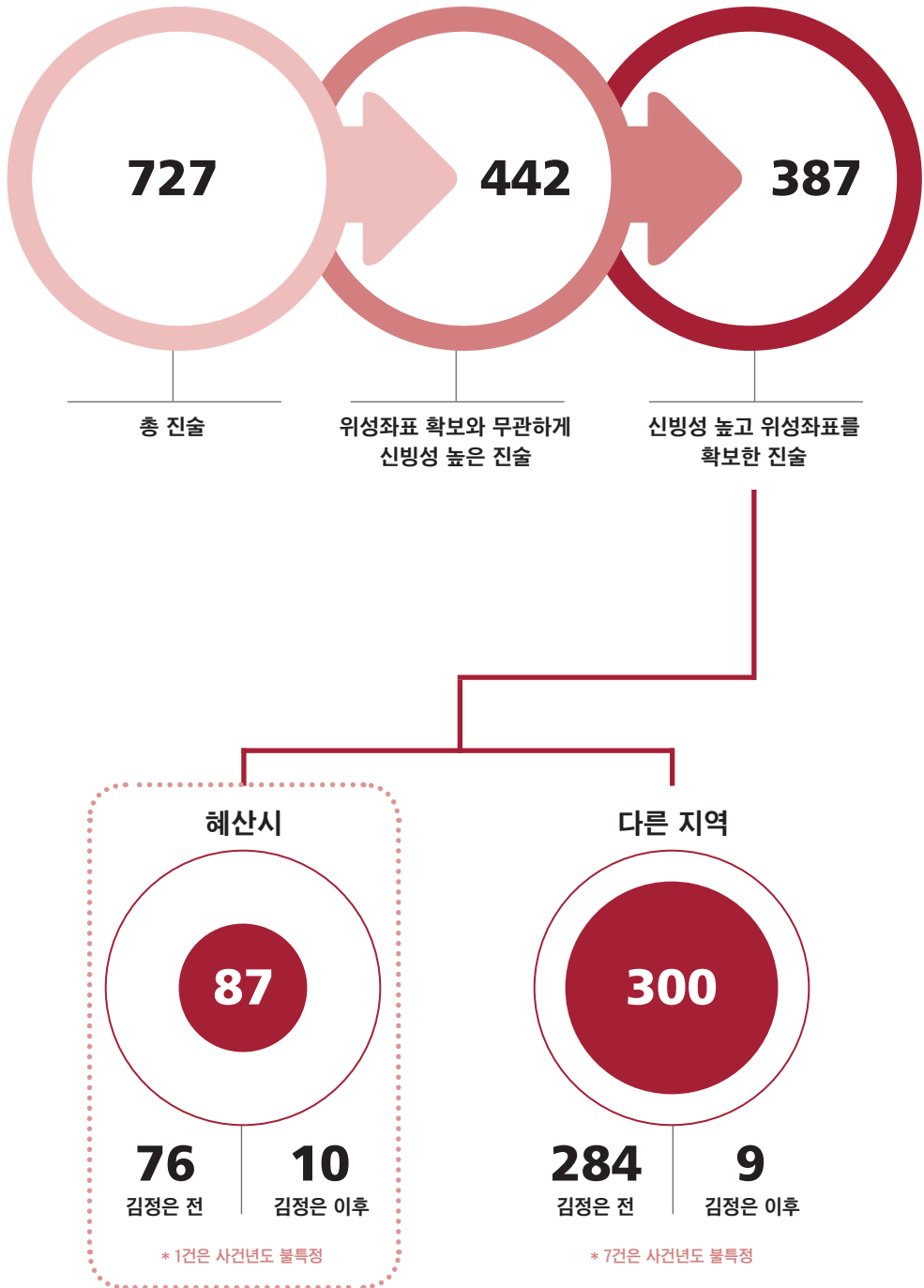
혜산시에 존재하는 검열조직과 감시기관들의 위치도 지도 4에 표시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에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검열과 감시를 받았는지 진술한 바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외국 영상물을 단속하고 외부세계와의 통신 신호를 탐지하며 북한 바깥 사람들과 연락하는 주민들을 체포하는 ‘전파탐지국’²³과 ‘727연합지휘부’²⁴의 위치도 표시하였다. 국경 통제기관과 국경경비대 초소들은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대체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정부가 다른 지역들보다 혜산시를 통한 탈북과 밀수,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온 것을 알고 이 지역 국경 통제에 각별히 신경 써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차트3은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이 기록해온 북한 전역의 처형 장소에 관한 모든 진술 데이터에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였는지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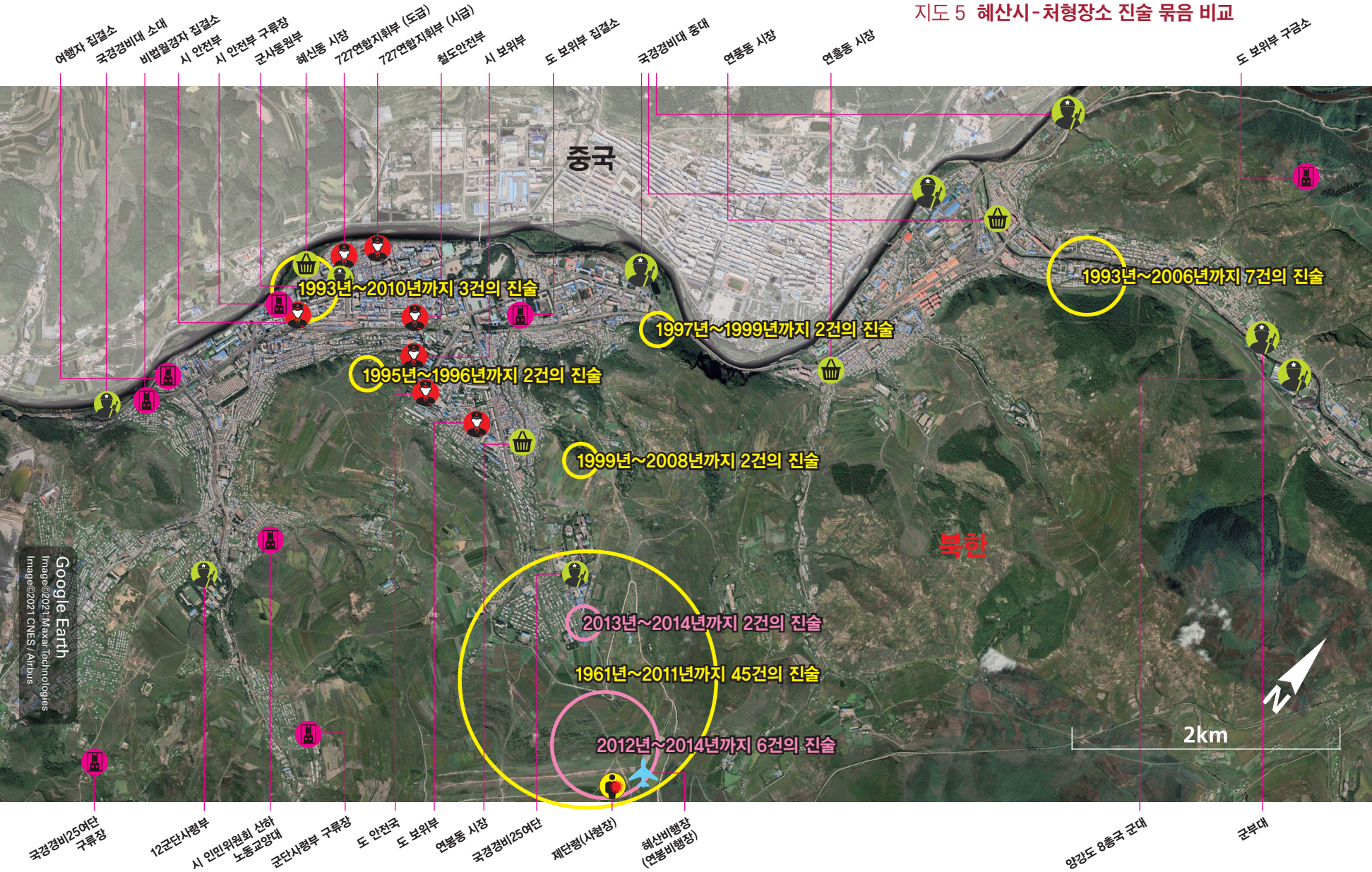
23 전파탐지국을 ‘27국’으로 지칭한 보고서도 있다. “27국은 디지털 신호와 라디오 전파 추적에 관여하고, 북한의 인터넷 트래픽과 전화 통화 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Martyn Williams,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15쪽, https://www.hrnk.org/uploads/pdfs/Williams_Digital_Trenches_Web_FINAL.pdf.

24 북한은 외국 미디어, 출판물, 라디오, DVD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검열조직을 2004년에 만들었고 ‘109상무’로 언급되다가 727연합지휘부로 확대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의 보고서, 16쪽.

차트 3 처형장소 데이터 정제 과정



지도 5 해산시-처형장소 진술 묶음 비교



가지의 정제 방법을 해산시에 관한 진술과 그 외의 지역들에 관한 진술들로 분류하는 데에도 적용하였다.

해산시 내 처형 장소들의 변화

지도5에서 6개의 노란색 원들은 김정은 시기 전까지 해산시에서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지목된 위치들을 묶은 6개 구역을 보여준다.²⁵ 각 구역마다 표시한 숫자는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치를 지목하여 기록한 좌표의 개수가 원으로 그린 범위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나타낸다. 이 밖에도 6개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15건의 진술이 더 있었다. 이 매핑 프로젝트는 해산시에서 벌어진 처형에 관해 김일성 시기였던 1961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까지의 해당하는 진술로 총 76건을 기록한 상태이다.²⁶

지도5에서 2개의 빨간색 원들은 2011년 12월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이후부터 해산시에서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지목된 위치들을 묶은 2개 구역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2개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2건의 진술이 있었다. 기록한 10건의 진술 가운데 8건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벌어진 처형사건들에 관해서였다.

노란색 원들과 빨간색 원들의 위치와 개수를 비교해보면 김정은 전까지 해산시 여러 곳에서 공개처형을 벌이다가 김정은이 권력을 쥔 후로 공개처형 장소가 지정되고 줄어드는 것일 수 있다. 해산시에서 검사였던 한 진술인은 자신이 검찰소에서 근무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해산시에 공개처형 장소가 4개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인은 과거에 비해 공개적인 처형 집행은 줄어드는 것 같았고, 공개처형을 보도록 주민들을 자주 동원하던 것도 점차 안 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하였다.²⁷

25 범위를 표시한 각 원은 이 조사의 참여자들이 지목한 위치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구역임을 뜻하는데, 우리가 위치들 간의 인접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거리 내에 복수의 위치가 존재할 경우 원으로 구역이 그려진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위치들이 400미터 거리 내에 있을 경우 인접한 위치로 묶이도록 설정하였다.

26 공개처형 위치를 지목한 61건의 진술들은 지도5에서 6개의 노란색 원 범위 내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15건의 진술에서 지목한 위치들은 우리가 설정한 400미터 거리 밖에 존재하여 6개의 원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27 통일연구원(KINU)은 탈북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2020년도 북한인권백서에서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기술하였다. 이규창 외 (2020), 15쪽.

지도5에서 노란색 원들이 보여주듯이 과거에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 강둑과 해산시 도심 부에서 공개처형이 벌어졌다는 진술들이 있었지만,²⁸ 김정은 시기에 이런 곳들에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진술은 없었다. 시장에서 공개처형을 했다는 진술은 해산시에서 2000년 이후로 없었다.²⁹ 그 대신, 2개의 빨간색 원들이 보여주듯이 김정은 시기 이 지역의 공개처형 대부분은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해산비행장과 그 주변의 언덕·산비탈·개활지·들판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처형에 관해서는 2013년에 한 번에 10명 이상이 처형된 사건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 해산비행장 일대는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개처형 장소들이고, 해산시 주민들의 주요 거주지역으로부터도 몇 개의 언덕과 작은 산들로 가려져 있는 위치이다. 지도5의 빨간색 원 표시 구역들과 북중 국경 간의 거리를 보면 해산시의 공개처형 장소들은 김정은 시기에 국경에서 먼 곳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 국경을 통해 북한 밖으로 처형 실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이 처형 장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2005년에 국경 도시인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공개처형 동영상³⁰이 촬영되어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과 같은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개처형 장소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력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공개처형장에서의 비인도적 행위

해산시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였다. 한 진술인은 2012년 AK소총으로 미성년자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바를 묘사하였다.

“피가 튀고 살이 너덜너덜해졌다. 시체를 밭로 밟아서 반으로 접어 자루 하나 마다 시체를 하나씩 넣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썩 자루를 어딘가에 버린다고 말했다.”

²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2019), 35쪽, https://en.tjwg.org/wp-content/uploads/2021/10/2019-Mapping-the-Fate-of-the-Dead_Korean.pdf

²⁹ 다른 지역들에서는 시장이 처형 장소로 흔히 쓰였다. 앞의 보고서, 32쪽.

³⁰ James Brook, “North Korean videos shock viewers,” *New York Times*, March 21, 2005, <https://www.nytimes.com/2005/03/21/world/asia/north-korean-videos-shock-viewers.html> (2021년 10월 5일 확인).

다른 진술인들은 2012년 헤산시에서 한 피고인이 얼마나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은 상태로 공개처형장에 끌려나왔는지 묘사하였다.

“차에 실려온 사형될 사람이 개처럼 끌려나왔다.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다.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말도 못하게 고막이 이미 나간 것 같았다.”

북한의 당국자들은 공개처형장에서 피고들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흔하게 하고, 그러한 주장은 고문, 처형, 시신 훼손 같은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동원된다.³¹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헤산시에서 벌어져온 처형에 국가정보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군 조직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가 모두 연루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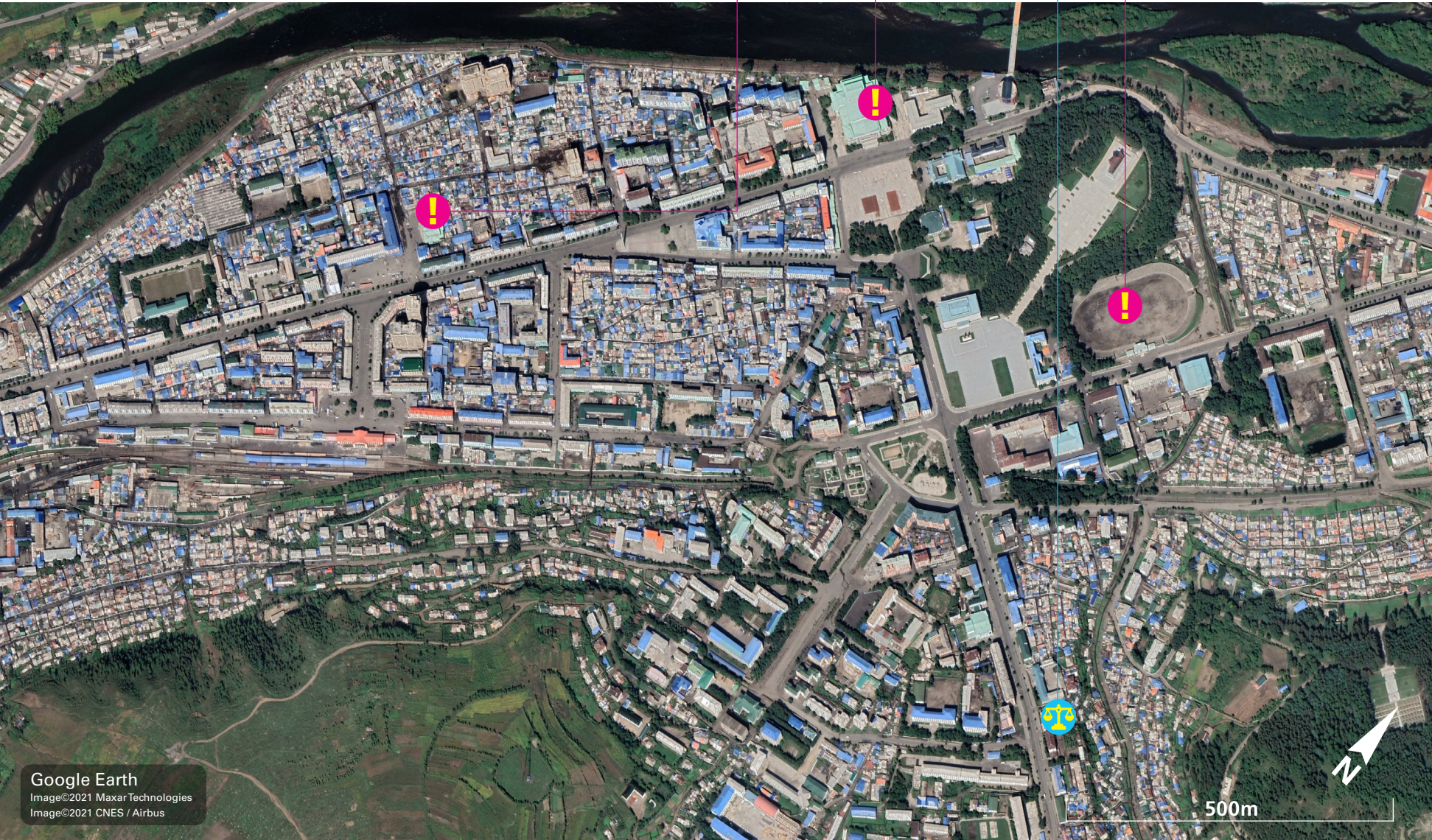
2013년 헤산시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 관해 한 진술인은 보위부 간부 한 명이 강제적으로 참관하도록 동원된 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직급을 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 과장이라고 밝히고 피고인의 혐의를 낭독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다른 처형사건에서는 안전부(현재 사회안전성)에서 나온 사람이 평양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피고인들의 혐의를 낭독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공개처형에 동원한 군중 감시

헤산시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공개처형에 참석한 군중을 어떻게 감시했는지에 관한 진술들을 기록하였다. 한 진술인은 2014년 6월에 벌어진 공개처형 하루 전날에 인민반장이 공개처형장에 손전화(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하였다. 이 진술인은 당시 공개처형 현장에서 여러 대의 군용 차량들 위에 막대기 같은 물체가 계속 회전하는 것을 처음 보았는데, 참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같은 신호가 나오는지

31 David Smith, “Learning from Genocide,” in *Less Than Human: Why We Demean, Enslave, and Exterminate Others*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2011), 132–162쪽.

지도 6 해산시-공개재판에 쓰인 장소들



Google Earth
Image©2021 Maxar Technologies
Image©2021 CNES / Airbus

500m

탐지하는 장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4-5명의 보위원들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휴대전화, 열쇠, 칼 등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했다고 진술하였다. 공개처형 전에 이러한 물건들을 압수했다가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 돌려주었다고 한다. 이 진술인은 북한 당국자들이 처형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거나 사진으로 찍혀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처형을 벌이면서도 군중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였다.³²

혜산시에서 검사로 일했던 한 진술인은 이렇게 공개처형장에서 군중을 감시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몇몇 진술인들도 처형장에 모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김정은이 권력을 차지하기 전부터 계속되어온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전직 검사는 김정은 시기 전에는 탐지장비 수량이 부족해서 참관한 사람들에게 대한 검색이 느슨한 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경까지는 금속탐지기로 약 5명마다 한 명 정도씩 무작위로 검색하는 방식이었다는데, 북한 당국이 약 2,000개 정도의 금속탐지기를 북한으로 들여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금속탐지기 수량이 늘어나면서 검색이 철저해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북한 당국이 금속탐지기를 2008년부터 리비아에서 수입해 쓰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더 성능이 좋은 금속탐지기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공개재판만 하고 처형은 하지 않은 장소들

혜산시에서 공개재판은 김정숙예술극장, 혜산영화관, 혜산경기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기록하였다(지도6). 공개재판에 이용된 장소들은 공식적인 재판소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2018년 보고서에 비슷한 사례의 탈북민 증언을 기술하였다. 2011년에 청진시에서의 한 공개처형이 기존의 개천 주변이 아닌 스포츠경기장으로 옮겨져 집행되었고, 경기장은 하나의 출입구만 있어서 처형을 참관한 사람들 모두 휴대전화를 압수되었다가 끝나고 돌려받았다는 진술이다. 임순희 외 (2018), 115쪽.

혜산시에 살았던 여러 조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공개재판에 조직적으로 참석해야 했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빠짐없이 참석하게 했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진술인은 노동자들은 공개재판에 강제로 참석하게 했지만 아동들과 학생들은 면제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다른 진술인은 혜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을 동시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에 2-3개의 학교씩 순서를 정해 공개재판을 보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결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넘었고 김정은 시기에든 처형은 계속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처형장소를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 밖으로 공개처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참석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우려가 고조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문제에 더욱 신경쓰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국제적으로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 정부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사회 내에 인권에 대한 의식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³³

인권조사기록단체들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북한 안팎으로의 정보 유출입을 막으려고 여러 해에 걸쳐 통제를 강화해왔고 코로나19 차단 명분으로 국경마저 봉쇄하여 탈북과 남한으로의 입국까지 성공하는 탈북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기록하는 일은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다.

33 Patricia Goedde (2018). "Human Rights Diffusion in North Korea: The Impact of Transnational Legal Mobilization".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5(1), 175-203쪽. doi:10.1017/als.2017.20.

비밀처형 또는 실내처형에 관한 조사와 기록화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종종 “비밀처형” 또는 “실내처형”으로 언급되는 처형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기록하려고 한다. 김정은 아래의 비밀스러운 방식의 처형 사건에 관해서는 주로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아시아프레스처럼 북한 내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두고 취재하는 몇몇 뉴스매체가 보도해왔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처형은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집권 후부터 특히 최근 5-6년 사이에 관한 뉴스보도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매체들이 보도해온 비밀 또는 실내처형에 관한 소식들을 별도로 기록화하고,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 탈북민들이 진술해온 정보와 병행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2020년 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겨우 265명에 그쳤다.³⁴ 비정부인권단체로서는 이들 가운데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차단 조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³⁵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는 한, 북한 내 최근 인권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참여자들을 찾는 것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의 처벌과 차단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통신수단으로 북한 내 상황을 파악해 보도하고 있는 북한전문 뉴스매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협력 양해각서에서 서명한 이래, 전환기정의위킹그룹과 데일리NK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애드보커시 활동을 뒷받침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저널리스트 그룹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정보 수집과 국제사회로의 공동 보고 활동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북한 곳곳의 문서고 파악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인권침해를 입증하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만한 장소들을 계

34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된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총 265명이었다. 2020년에는 229명이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 36명이 입국하였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021년 10월 19일 확인).

35 북한의 코로나19 국경봉쇄 조치 이후에 탈북해서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이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속 파악하고 위치를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누적해온 데이터베이스에서 혜산시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로 양강도의 당 문서고 위치와 문서고 입구³⁶를 식별하였다. 이러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은 장래의 사법적 절차와 북한의 과거사를 진상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기록물일 수 있다.

향후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한반도에 전환기가 도래할 때 이런 곳들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인 외부 개입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러한 문서고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처형장소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한 문서고들은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에 국가급, 도급, 시·군급 문서고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각급 단위마다 크고 작은 여러 문서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뒷받침하는 문서증거가 보관되어 있을만한 시설들의 위치는 각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을 수 있고 탈북민들 중에도 위성사진으로 위치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의 도움으로 어디에 문서고들이 더 있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분량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명령지휘체계 매핑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북한의 명령지휘체계를 연구하고 자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승인한 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관들이 북한 전역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처형과 강제실종 사건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밝히려는 시민사회 프로젝트가 없었다.

혜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첫 2

36 혜산시에서 검사로 일했던 진술인은 문서고 입구를 '문서고 갱도'라고 부르며 위치를 지목하였다. 다른 진술인 한 명도 같은 문서고 위치를 지목하였다.

년 동안 13개 기관과 시설의 위치를 파악해 첫 보고서에서 공개하였다.³⁷ 그로부터 4년 후인 2021년까지는 헤산시에서만 당기관, 국가정보기관, 군부대, 사법기관 등 총 64개 기관과 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매핑 프로젝트의 차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기관과 시설들이 인권침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 다른 출처들로부터도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면서 헤산시 외의 다른 지역들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매핑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북한의 명령지휘체계를 연구함으로써 명령의 하달 구조와 관련 기관들의 위치 외에도 북한의 경찰과 국가정보기관, 군, 그밖의 정권 보위기관들의 관할영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인권침해 혐의 기관들의 관할범위를 공간지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가올 책임추궁 과정을 준비하며 우리가 모으는 기록의 가치와 국제적 차원의 인권옹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37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2017), 44쪽, https://en.tjwg.org/wp-content/uploads/2021/10/2017-Mapping-Crimes-Against-Humanity-in-North-Korea_Korean.pdf.



Sponsor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UPPORTING FREEDOM AROUND THE WORLD

9 791197 695407
ISBN 979-11-976954-0-7
93300